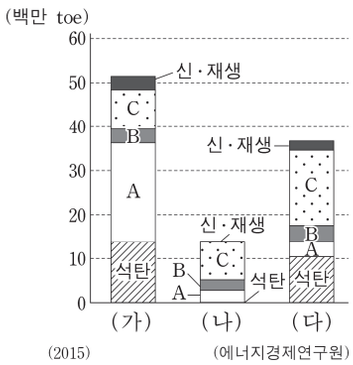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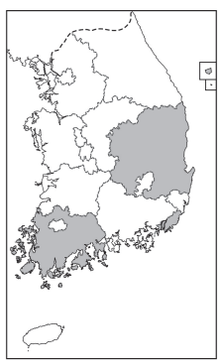
# 07 2018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3점

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A~C는 석유, 원자력, 천연가스 중 하나임.)



①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지역 내 비중은 부산이 경북보다 높다.
②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지역 내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다.
③ B는 A보다 수송용 연료로 많이 사용된다.
④ B는 C보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.
⑤ C는 A보다 발전 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다.

## ✓ 유형 해결

지역별 에너지 통계를 통해서 지역과 에너지 모두를 추론하는 고난이도 복합 에너지 추론 문제입니다. 항상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 지표를 잡고 해석을 끝까지 하고 난 후에 다른 지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. 한 지표의 해석이 완료되었다면, 다른 지표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항상 지역성과 일반성에 기반한 추론을 합시다.

## 3R

**Response**

① 발문 체크
② 지도에 주어진 지역 체크
③ 자료 해석 후 매칭
④ 선지 진입

**React**

발문에서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'공급량' 관련 자료임을 체크. 주어진 지역은 경북, 전남, 부산임을 전제.

비중 지표가 아니라 양 지표이므로 절대적인 비교 가능.
에너지 사용량을 생각해보면 석유화학단지, 제철공업 단지, 각종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전남이 에너지 공급총량이 가장 많을 것. 그 다음은 도시적 성격을 가진 부산보다는 제철공업단지와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경북이 더 많을 것. 총량: 전남 > 경북 > 부산. (가) = 전남 (나) = 부산 (다) = 경북.
전남은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가 석유이므로 A = 석유.
천연가스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잘 사용하지 않고 공업지대에서는 더더욱 사용을 잘 안 하므로 전남과 경북에서 비중이 매우 작은 B = 천연가스
원자력은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비중이 많다는 점에서 C = 원자력

① 에너지원별 공급량에서 석유(A)가 차지하는 지역 내 비중은 부산이 경북보다 높음. 석유 공급량은 비슷하지만 에너지 총 공급량이 경북보다 훨씬 적으므로. 정답 In
②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에서 원자력(C)이 차지하는 지역 내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. 전남X. 내용왜곡 Out
③ B – 천연가스는 A – 석유보다 수송용 연료로 많이 사용 X. 석유가 수송용으로 주로 사용. 주체교체 Out
④ B – 천연가스는 C – 원자력보다 폐기물 처리 비용 덜 듬. 원자력은 핵폐기물 처리비용 ↑. 주체교체 Out
⑤ C – 원자력은 A – 석유보다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적다. 원자력은 대기오염X. 주체교체 Out

**Refine**

결과값을 알고 있다면 충남 다음으로 에너지 공급(사용)량 2위인 전남과 3위인 경북으로 바로 (가)~(다) 판별이 가능할 것이다. (가)~(다) 판별만 해도 1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가능하다. 석유가 A든 B든 C든 간에 지역 내 비중은 부산이 더 높을 것이므로. 또한 ③선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수송용 연료로 많이 사용된다는 선지를 넣으려면 AorB가 석유라는 뜻이다. 대형차에서 수송용으로 LNG를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양 극값 비교를 위해서는 수송용의 특성이 뚜렷한 석유와 타 에너지를 당연히 비교할 것이다. ④도 마찬가지이다. 폐기물과 관련된 에너지는 원자력 밖에 없다. ⑤는 이전에 양극값 비교를 해야 하나, 석탄은 이미 주어졌으므로 남은 것 중 양극값인 석유vs원자력 비교를 한 것이다. 또한 비중만 준 것이 아니라 양 지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각 에너지별 막대 크기를 모두 더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. A는 C의 합산보다는 적지만 세 지역 중 한 곳에서 치중하는 지표일 것이고, 세 지역 특성상 가장 덜 이용할만한 에너지가 LNG기 때문에 총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.